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언론 스크랩

2019.07.16(화)~07.17(수)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TV	안동MBC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 포럼 개최	
2	신문	경북도민일보	동북아5개국 청년 미래를 논하다	
3	신문	경안일보	동북아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자질키워	
4	신문	경상투데이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미래 논하다	
5	신문	대구경북일보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6	신문	세명일보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 논해	
7	신문	경북연합일보	러시아서 동북아 청년 리더스 포럼	
8	신문	경상매일신문	동북아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하나되다	
9	신문	대경일보	동북아5국 청년들, 러시아서 미래 논하다	
10	신문	월간경북신문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 러시아에서	
11	신문	시대일보	동북아 청년리더스 포럼 개최	
12	신문	경북일일신문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에서 미래 논하다	
13	신문	경대일보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미래논하다	
14	신문	중도일보	경북도, 러시아에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개최	
15	신문	경안일보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자질 키워	
16	신문	일요서울	경북도,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개최	
17	신문	일요신문	경북도, 러시아서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가져	

18	신문	서울일보	동북아 5개국 청년, '동북아실아 역사 교류-미래'토론	
19	신문	전국매일신문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20	인터넷	경인투데이뉴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21	인터넷	CBN뉴스	경상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22	인터넷	GBN경북방송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23	인터넷	드림저널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에서 미래를 논하다	
24	인터넷	구미뉴스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25	인터넷	뉴스웍스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26	인터넷	뉴시스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러시아에서 '청년 포럼' 열어	
27	인터넷	경북인터넷뉴스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 포럼 열려...	
28	통신사	NSP통신	경북도, 러시아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 포럼' 개최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 포럼 개최

이호영 | 2019/07/16 14:02:27

목록

경상북도가 마련한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 포럼이 일주일 동안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60여 명의 청년이 참가한 가운데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열렸습니다.

◀ END ▶

이번 포럼에서 참여 청년들은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1 R|이웃사촌 시범마을 '윤곽'.. "농촌형 I...
- 2 R|교직원 부당해고' 안동대 인권센터 조...
- 3 원자력연구, 경주 감포에 제2 연구원 설치
- 4 R|안동시체육회 직원 경품 낭장고 '슬쩍'...
- 5 R|간주린 뉴스[4판]
- 6 봉화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 7 '안동대 교직원 부당 해고' 학내 인권센...
- 8 상주서 승용차 휴대폰 매장 돌진...인명 ...
- 9 R|황당한 '5분 발언' 표절 '87%가 토씨까...
- 10 소형 등네슈퍼도 일본제품 불매 운동
- 11 전교조 경북지부, 전임자 징계 저지 결의...
- 12 R|청도, 지방소멸 위기 멀치려 안간힘

동북아 5개국 청년 미래를 논하다

도·러 크라스노야르스크주 2019 리더스포럼 공동 개최

경북도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공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렸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

들과 교류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부터 청년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온 채정호(동국대 경주캠퍼스 4학년)군은 "네 번째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일본 도야마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자질 키워

지난 9~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러시아 청년들과도 교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경북도가 지난 9~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

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동북아시아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경북도가 지난 9~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자리에 모인 동북아시아 5개국 청년들 모습.



동북아시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미래 논하다'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

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 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

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8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當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 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

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동북아 5개국 청년들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훈기자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 논해

NEAR 회원단체 참가

경상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



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

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지난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



지난 9~15일까지 러시아에서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서 동북아 청년 리더스포럼

한국·일본·중국 등 5개국 참여
역사교류와 미래 등 열띤 토론

경북도는 지난 9~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

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이인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을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하나 되다

NEAR 회원단체 리더스포럼 참가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을 개최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 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 함양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

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팔 기자



지난 9~15일까지 러시아에서 열린 경북도 주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에 참석한 한국 등 5개국 청년들이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경북도 제공

동북아 5國 청년들, 러시아서 미래 논하다

9~15일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차세대 지도자 자질 함양 시간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

아 현지 600여 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안상수 기자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 포럼, 러시아에서



경상북도는 지난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

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원기자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 포럼’ 개최

경상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 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

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수국기자 aass7909@hanmail.net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에서 미래 논하다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

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병화 선임기자**

□경 대 일 보

2019년 07월 17일 수요일 003면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미래 논하다'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NEAR) 회원단체에서 6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 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

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

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되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호 기자

kangch4321@naver.com

중도일보

1951년 창간 中都日報 joongdo.co.kr

경북도, 러시아에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개최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권명오 기자

최종 기사일력 2019-07-16 09:27



(제공=경북도)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지난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프린트

취소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자질 키워

지난 9~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러시아 청년들과도 교류

김구동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6일(화) 22:43



↑↑ 경북도가 지난 9~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한자리에 모인 동북아시아 5개국 청년들 모습.

[경안일보=김구동 기자] 경북도가 지난 9~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

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url : http://www.gailbo.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88&idx=259230

Copyrights ©경안일보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개최

윤 이성열 기자 ① 승인 2019.07.17 03:23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단체사진.

[일요서울 | 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열 기자



경북도, 러시아서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가져

동북아 5개국 청년들...동북아시아 역사교류·미래 등 다양한 주제 토론

온라인 기사 2019년07월16일 10시10분

-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공동... NEAR 회원단체 60명 참가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지난 9~15일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공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지난 9~15일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가졌다(사진=경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참가한 청년들은 포럼 기간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ilyo07@ilyo.co.kr

이 기사 주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41458

동북아 5개국 청년, '동북아시아 역사교류-미래' 토론

☞ 신영길 기자 Ⓢ 승인 2019.07.17 17:11

| 경북, 러시아 합동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개최



경북도는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신영길 기자) 경북도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가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서 60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 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며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나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영길 기자

인쇄하기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2019.07.16 16:32 입력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 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신용대 (shinyd@jeonmae.co.kr)

경북/ 신용대 shinyd@jeonmae.co.kr

인쇄하기 창닫기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기사게재일: [2019-07-16 15:19:19]

변상범 기자



▲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

경상북도는 지난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경인투데이뉴스 제공-

경상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NEAR 회원단체 60여 명 참가 -

2019년 07월 16일 [cbn뉴스]



↑↑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 포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16일(화) 23:29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지난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url : http://www.egbn.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46&idx=119189

Copyrights ©GBN 경북방송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드림저널 http://www.newsdream.net](http://www.newsdream.net)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에서 미래를 논하다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기사입력시간 : 2019/07/16 [17:01:00]

김영호 기자

[드림저널]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서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 인터넷뉴스 인쇄하기

[인쇄하기] [닫기]



경북도,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논하다

[2019-07-16 오후 5:37:14]

[구미뉴스]=경상북도는 지난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임양춘/본부장(lyc8769@hanmail.net)

※ 이 기사 주소 : <http://www.gumineews.co.kr/ArticleView.asp?ArticleId=52533&Section=04>

[인쇄하기] [닫기]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서 청년리더스포럼 개최

문봉현 기자 | 승인 2019.07.16 15:16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봉현 기자

NEWSIS 지방 > 대구/경북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러시아에서 '청년 포럼' 열어

류상현 기자 | spring@newsis.com

등록 2019-07-16 09:20:36



【안동=뉴스시스】 지난 9~15일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열린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에 참가한 청년들이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을 듣고 있다. 2019.07.16 (사진=경북도 제공)

【안동=뉴스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 9~15일 러시아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주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열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가 운영하는 비류사 야영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각국 청년들은 5일 동안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우정을 쌓았다.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 도야마현에서 참가한 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지방정부와 시민들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빠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편집일 2019-07-17 16:46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10:14:45

경북  22.0°C 로그인



뉴스룸 오피니언 인사이드 시민참여

회사소개 독자(후원)가입 기사제보 전국네트워크



'경북 R&D특구 추진전략 보고회'개최



영.호남 정보화마을, 상생과 화합의 만남 가져



경북 경주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선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개소

뉴스룸 > 경북도정뉴스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열려...

동북아 5개국 청년들, 러시아 한복판에서 미래를

기사입력 2019-07-16 17:32 최종수정

복사 목록 인쇄

경상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해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최근 많이 본 기사

1 2019년 7월 1일자 경북도 인사



2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숨져



3 경북 북부 우박피해 발생..



4 경북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5 서울 청년.. 경북에서 일자리 찾는다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 사고, 미담 등 기사제보해 주세요.

기사제보 054) 452-8030 온라인제보

베스트기사

[구미시정뉴스] 구미시 하반기 6급 이하 인사

[기관단체] 천지자원봉사단 구미지부, 현철MOU-중...

[여행정보] "Hot한 여름, Cool하게! 울여름 구미로 떠..."

[여행정보] 경상북도 숨겨진 자신만의 인증 샷 8선

[경북도정뉴스] 경북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구미시정뉴스] 7월 9일 구미시 읍, 면, 동 종합 소식

[구미시정뉴스] 7월 11일 구미시 읍, 면, 동 종합 소식

[구미시정뉴스] 7월 10일 구미시 읍, 면, 동 종합 소식

[기획기사] 경상북도체육회 홈페이지 관리는 총체적...

[구미시정뉴스] 7월 15일 구미시 읍, 면, 동 종합 소식

Hot 포토이슈

1 / 2



임동혁의학과 김홍길 원장이 경북대 의과대학에서
의대장대상을 수상

김충섭 시장, 변화와 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

경북도, 양파 소비촉진운동

2016년 이래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이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
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
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
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
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인터넷뉴스 (gbinews@hanmail.net)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사후원하기 >

구독신청하기 >

여러분의 후원이 경북인터넷뉴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경북인터넷뉴스 후원하기 >

후원/행사취재요청

☎ 054-452-8030

iNEWS 경북도정뉴스 관련기사

행복도우미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열어
'경북 R&D특구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
영·호남 정보화마을, 상생과 화합의 만남 가져
경북 경주에 혁신 원자력기술연구원이 들어선다.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실 개소

댓글 0

작성자

비밀번호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경북도, 러시아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개최

2019-07-16 16:08, 조인호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경상북도, #러시아,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019 동북아시아 청년리더스포럼' 열려...
NEAR 회원단체 60여명 참가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주(州)와 합동으로 '2019 동북아시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중심지 크라스노야르스크주에서 운영하는 비류사(BIRYUSA) 야영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5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회원단체에서 60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했다.

포럼은 러시아 현지 600여명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교류와 미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21세기 동북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함양했다.

참가한 청년들은 5일 동안 사무국에서 초빙한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김준엽 교수의 특강 등 동북아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비류사(BIRYUSA) 측에서 준비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가하며 외국 청년들과 우정을 쌓았다.

지난 2016년부터 청년리더스 포럼에 줄곧 참석해 온 동국대(경주) 4학년 채정호 군은 “네 번째 포럼에 참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외국 야영장에서 진행돼 조금 힘든 환경이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 타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일본 도야마(富山)현에서 참가한 대학생은 “각국 정부 간 정치,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간의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포럼참가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옥채 NEAR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중앙 정부 간 정치, 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시민들 간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빠르고 역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책임질 청년 리더들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용성을 배양해 동북아 평화시대의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